

**생명 건 헌신으로, 생명을 살린  
시대의 파수꾼 에스더  
-복음으로 여는 에스더-  
에스더 4:15-17, 갈라디아서 1:4-5**

정윤돈 목사님

\* **에4:15-17**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 **갈1:4-5**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아담부터 모든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제자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육신과 경제문제로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절대미션을 발견해 어려움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주일이다. 우리는 금토일시대와 아이들의 딸을 애기하고 있다. 무엇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까? 그 첫 번째가 '독서'다. 저희 아버지 친구가 책을 제본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셨다. 그분이 여러 책을 제게도 주셨다. 또 다른 아버지 친구는 삼성출판사에서 책을 파는 일을 하셨다. 전집들을 아버지가 사서 제가 많이 읽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환경이 중요하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시스템적으로 부모님이 저녁마다 책을 읽어주고 날마다 개인포럼을 한다. 갓난아이 때부터 책을 읽어주고 포럼을 자주 하니 똑똑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램넛트들이 스스로 느끼면 된다. 멍하니 사는 게 제일 문제다. 절망을 해도 진짜 절망을 하고,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이 뭔지 고민하며 책과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대단하지만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다 결론 낸 것들이다. 그러니 20대부터 도전해서 회사를 만들고 팔아서 이렇게 되었다. 후대들이 이런 좋은 책들과 인물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망대의 세 가지 터가 있다. 감격, 설레임, 열정이다. 그냥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다. 느헤미야도 그냥 망대를 세우지 않았다. 램넛트

는 세계의 문화와 절기를 잘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 절기와 문화와 이념을 잘 알아야 바른 답을 줄 수 있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이길 수 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 달란트와 유일성, 전 문성과 재창조, 세계화다. 램넛트가 하나님 안에서 세계에 도전하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 적당한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된다.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한다. '새로운 망대'는 살리는 것이다. 나만 살리려 하면 불행해진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개처럼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살리면 새로운 망대가 서게 될 것이다.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목숨을 걸고 유다 백성을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훌륭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하셨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다. 다 맞는 말로 죽인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 최고의 언약이다. 마귀는 살인자고 이간자다. 이유를 다 대면서 흑암으로 빠지게 하고 죽게 한다. 이 살리는 언약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살리는 사역의 절대망대로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모르드개와 에스더이다. 여러분들도 모르드개처럼 어린이 램넛트를 양육하는 램넛트메이커가 되어야겠다. 후대 램넛트들은 나만 생각하지 마라. 끝까지 책 읽고, 자격증을 따고, 멍하게 있지 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시기 바란다. 감격과 설레임과 열정이 있어야 세계를 살린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모함으로 전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생명 건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1. 에스더서의 전체 스토리를 요약하겠다.**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아하수어로 왕이 즉위 3년에 페르시아 127도의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몇 십일 동안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 잔치는 약 2년 후, BC.480년에 있을 그리스와의 3차 페르시아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파티였다고 보고 있다. 이때 아하수어로 왕은 와스디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와스디를 불렀지만 와스디 왕후는 왕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이 일로 인하여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되었고, 뒤를 이어 모르드개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개가 에스더의 부모와 같이 양육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하수어로 왕의 깊은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고관들은 하만에게 절을 했지만 유독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교만해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모르드개는 세계복음화하고 237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만이 세계복음화를 막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만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가 유다 민족임을 알고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며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 전국에 공포를 하였다. 이때 모르드개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말하여 유다 민족을 구할 것을 전달하였다. 그러면서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말했다. 에스더는 영적으로 자신을 양육한 분을 무시하지 않고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했다. 성령인도따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았다. 그리고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다. 당시에는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오면 바로 죽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때 금혼을 내밀면 죽이지 않았다. 왕은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에게 금혼을 내밀어

에스터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만 잔치에 청한다. 왜냐하면 많은 대신들 앞에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아하수어로 왕은 웬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들던 중 모르드개가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을 고발하여 왕을 구한 장면을 듣게 된다. 다음 날 왕이 모르드개에게 어떠한 상을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모르드개를 20m의 장대에 달아 죽이고자 하는 허락을 받기 위해 왕 궁정 뜰에 와 있는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하만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자신이 받고자 하는 영광을 말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개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자신이 말을 끌고 가면서 왕에게 존귀함을 입은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을 돌면서 큰소리로 외치고 돌아온다.

하만은 이 일이 있는 후 다시 에스더가 준비한 만찬에 참여하였다. 이때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자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왕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에스더 7장 5절에 보면,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고 왕은 말하였다. 이때 에스더는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말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에스더가 굉장히 센 여자라고 생각했다. 현장을 살리려면 에스더만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발견해야 한다. 결국 하만은 죽고 유다 민족은 멸망을 받기로 제비뽑은 날 즉, 부림일에 구원을 받게 되어 그날을 ‘부림절’이라 부르고 지금도 유대 민족은 부림절을 가장 성대한 명절로 지키고 있다. 부림절에 먹는 과자의 이름이 ‘하만의 귀’다.

## 2. 우리들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깨달음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다.

(1) 첫째로 우리들은 위기일수록 모르드개처럼 후대를 준비시켜야 하겠다. 경제적인 위기와의 관계없다. 이럴수록 우리 나라를 살릴 후대를 키워야 한다. 이번에 홍콩을 가보니까, 지금 홍콩이 허브가 되어 있더라.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제 응답도 받아야 한다. 세계 살릴 그림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그려야 한다. 위기일수록 후대들을 아름답고 지혜롭고 믿음 있게 준비해야 한다. 에스더 한 사람이 준비되니 전 민족을 살릴 수 있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모르드개와 같은 램넛트메이커가 되시기 바란다.

(2) 두 번째로 후대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하여나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누구를 원망하면서 할 건 제대로 안 하고 교만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시기, 질투하고 남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 결국 망한다.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천명, 소명, 사명 안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다. 다니엘과 요셉은 포로와 노예로 갔지만 ‘나만 살면 다 산다’고 생각했다. 램넛트들은 CVDIP 꿈을 꾀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게 안 된다고 낙심하는 수준의 신앙 생활이면 안 된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지만, 좌절하지 않고 모르드개의 영적인 훈련과 지도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여 민족을 살리는 영적서밋, 기능서밋, 문화서밋이 되었다. 전 세계 237 나라를 가보기만 하면 된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밝기만 해도 흑암이 꺾인다. 현장의 망대다. 빛을 받해야 한다. 그래서 램넛트들은 영성과 지성과 인성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통하여 시작될 수 있다. 자긍심은 여러분의 외모와도

전혀 관계없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자신감이 있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

(3)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고 지혜롭다. 에스더는 왕의 대전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때 에스더는 왕과 하만만 자신의 여왕 공으로 초대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많은 대신들이 있는 대전에서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9가지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게 지혜다. 실력과 지혜는 다르다.

(4) 모르드개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사랑한 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 에스더 10장 3절을 보겠다.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어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총리라고 하면 다니엘과 요셉만 생각하는데 모르드개도 큰 나라의 총리였다. 이런 정치인들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에게서 이러한 인물이 나와야 하겠다.

(5) 다섯 번째, 모르드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다.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아부하지도 않았고, 왕비가 된 에스더도 의지하지 않았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6) 여섯 번째, 모르드개는 거대 제국을 다스릴만한 지혜와 실력과 인격을 갖춘 리더지였다. 모르드개는 문지기였지만 총리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다. 생각이 늙어서는 안 된다. 에스더서 9장 3절에서 4절을 보겠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문지기로 즐기만 했으면 이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요즘에는 20대 젊은이들이 머리가 다 늙었다. 몸이 편하니까 몸이 늙는다.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들이 모르드개와 같은 중직자로 에스더와 같은 후대 램넛트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리겠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망대 기도를 하겠다.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뜰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들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모르드개와 에스더처럼 미래를 위하여 잘 준비하여 나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237나라 5000종족을 살려내는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37나라 5천 종족, 1천만 제자 살리기 위해 영적 모델로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을 굳게 잡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고 절대망대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